

지대본 모두발언

7. 4. [일] 16:00 재난안전상황실

기안: 이어진(평가담당관/3314)

검토: 서인석(평가담당관/3311)

수정: -

□ 지난 한 주간 감염양상 시사점

○ 교환학생, 원어민 강사 등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감염확산

- 최근 친목모임을 갖은 외국인 **교환학생 10명** 확진
- 타향살이를 하는 교환학생, 유학생은 국가별, 학교별 모임 등을 통해 서로 긴밀한 관계와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음
- 관내 대학, 교환학생·유학생 커뮤니티 등과 소통하며 방역수칙 위반사례와 그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길
- 홍대 펍 등에서 모임을 한 것으로 파악된 **원어민 강사들을 고리로 수도권 학원들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음. 인천의 경우 현재까지 18명** 확진
- ▶ 서울 마포구 음식점, 경기 영어학원 관련 총 291명 누적 확진
- 델타변이 감염자가 일부 확인된 클러스터인 만큼 인천 확진환자 변이 선별 검사 및 접촉자 추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
- 아울러 원어민 교사 고용 어학원 현황파악과 유증상자 검사 독려 등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도록

○ 감염취약시설 노래연습장 집단감염 지속발생

- 최근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관련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음
- **16명이** 확진된 **부평구 노래연습장 집단감염**과 관련해서는 확진환자들의 허위 진술과 비협조로 역학조사와 선제적 확산차단에 어려움을 겪었음
- 또한 **남동구 확진환자가 코인노래방,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면서 현재까지 13명이** 확진되기도
- 시에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 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기간 내 검사(7.1.~7.)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, 특별방역점검과 위반시설에 대한 조치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길
- ▶ 노래연습장 관련 행정명령 검사 건수(7.1.~7.7.) : **금일 285건 / 누계 866건**

○ 그 밖의 시사점

- 확진자의 접촉으로 검사를 받은 후, 자가격리를 유지하지 않고 이탈하는 사례가 있음
- 단순검사자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, 확진환자 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.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
- **함께 생활하던 고령의 어르신 4명 확진.** 지표환자의 경우 증상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검사, 어르신 모두 백신 미 접종
- 별도의 시설 관리자 없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집단 생활하는 곳은 방역 사각지대, 감염취약 고리가 될 수 있음. 쉽지 않겠지만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어르신 집단거주시설을 파악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

□ 수도권 유행에 따른 방역강화 및 하반기 백신접종 철저

○ 수도권 급격한 확산세에 대비해 선제적 방역강화

- 수도권 확진환자 급증세가 심상치 않음. 인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서울, 경기 확산세가 시간차를 두고 인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말고 대응해 주시길
- ▶ 특히 임시선별진료소 증설 등 3차 대유행 당시 취했던 조치들을 정리해 시행여부 검토
- 거리두기 단계 1주일 연장(7.1.~7.)은 서울 등 어느 한 지역만 강화된 단계를 유지할 경우 풍선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, 하나의 생활권인 수도권에 보조를 맞춰 결정한 것
- 각 군·구에서 실망하셨을 시민, 자영업자 분들을 잘 다독여 주시고, 시에서는 확진환자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7일 이후 거리두기 개편 가능여부에 대해 중대본, 서울, 경기와 긴밀히 논의할 수 있도록

○ 내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백신접종 철저

-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백신접종 시작. 백신 보관부터 사전예약, 접종,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
- 또한 오늘 중대본에 보고한 인천시 자율접종 계획안과 관련해 사전에 각 군·구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지만, 접종대상이나 순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와 논의하도록